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Feature

여행지도 느낌의 멋 찾는 여행자를 위한 길잡이

글/임동근 기자 · 사진/김주형 기자

지도는 여행을 돕는 편리한 도구이다. 여행자들은 지도를 보며 여행 일정을 짜고, 계획을 세우며, 여행지에서는 지도를 보면서 이동을 하고, 주요 관광지와 식당, 숙소를 찾는다. 특히 장기간의 배낭여행이나 자전거 및 자동차 여행이라면 여행 방법에 맞는 지도 선택이 여행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해외여행자들의 편안한 여행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소개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 자연스럽게 흥얼거려지는 때이다.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고지도에는 독도가 한반도의 영토라는 표시와 내용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색깔로 영토를 구분하거나 이름과 설명으로 한반도의 영토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고전적인 지도는 고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구분하고, 지역의 경계를 표시해준다. 인공위성의 도움과 지도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의 지도들은 다양한 모양과 내용을 담아 선보이고 있다. 내비게이션으로 불리는 ‘전자지도’는 이런 지도의 정점에 서 있다.

해외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여행 지도도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워지고, 선택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도보여행을 위한 지도를 비롯해 야경 명소, 박물관과 미술관 지도, 블로거들이 추천한 명소를 담은 지도, 전자지도, 휴대전화 지도 등 다양한 지도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지도가 모든 여행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패키지 상품 여행자에게 지도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구경 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인솔자만 잘 따라다니기만 하면 문제 될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개별여행자라면 상황이 다르다. 현지에서 교통편을 이용하고, 관광지, 먹을 곳과 잠잘 곳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움직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의 배낭여행이나 자전거 및 자동차 여행이라면 여행의 성격에 맞는 지도를 선택한 후 이동 루트를 짜고 일자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흔히 여행자들은 가이드북을 들고 여행을 한다. 가이드북은 현지 관광지와 숙박, 식당 정보를 지도와 함께 수록하고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가이드북에 수록된 지도는 들고 다니며 보기에 무겁고, 주요 관광지 설명과 연결돼 있지 않은 책들이 많으며, 더러는 도로 이름이나 주요 관광지가 빠져 있기도 해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 현지의 관광안내소에서도 상세한 여행 지도를 구할 수 있지만 한국어로 표기된 것이 없어 목적지를 찾으려면 한참이 걸린다.

배낭여행이나 개별여행을 계획한다면 일단 국내에서 출간된 한국어 여행 지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내에 출간된 해외 지도 중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해 배낭여행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것으로는 ‘저스트고 유럽 여행지도’, ‘윙버스 빅맵’, ‘비틀맵’, ‘인사이드아웃’ 등이 있다.

자전거나 자동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도시 지도는 물론 상세한 도로 정보가 나와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국내 서점의 외국 서적 코너에서는 미쉐린(Michelin) 지도, 콜린스(Collins) 지도, 론리플래닛(Lonely Planet) 지도 등에서 나온 지역별, 국가별 상세 도로 지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 한국어판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일본에서는 휴대전화 지도로도 여행이 가능하다. KTF 이용자의 경우 일본 현지에서 무선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며 여행 정보와 음식점, 숙박 업소를 찾을 수 있다.

저스트고(Just go) 유럽 여행지도



유럽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히는 11개국 32개 도시의 정밀 지도와 유명 관광지 700여 곳을 총 250쪽에 담았다. 짧은 기간에 최대한 많은 여행지를 돌아보려는 여행자들을 위해 지역별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명소(Must go Places) 20곳을 사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실었으며, 큰 지도, 중간 지도, 세부도 등으로 여행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삽화와 숫자를 통해 만족도나 특징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파리의 경우 에펠탑을 비롯해 몽파르나스 타워, 개선문 등을 표시한 야경 명소 지도를 별도로 실었다. 지방의 도시를 소개하는 지도도



안 야경 명소 시도를 멀리도 마련했다. 선방의 능급을 뜻사도 표시하고, 밤길에 위험한 지역도 표시했다. 수많은 유명 예술가들이 묻혀 있는 몽마르트르 묘지와 페르 라셰즈 묘지의 지도에는 스탕달(작가), 트뤼포(영화감독), 오스카 와일드(작가), 짐 모리슨, 쇼팽 등 주요 인물들의 무덤 위치를 자세하게 표시했다.

런던 부분에서는 명탐정 홈스, 비틀스, 아가사 크리스티 등을 엿볼 수 있는 ‘마니아를 위한 도보 여행 지도’와 방문객 만족도·수집가의 수고도·수집품의 전문성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평가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평가 지도’를 수록했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가 함께 담긴 ‘여행 계획 지도’에는 와인, 거리 미관, 맥주, 온천, 음악, 자수, 자기 등을 표시해 도시의 명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과 궁전, 유적, 음악제, 온천, 하이킹, 크루즈, 자연경관 등에 따라 도시에 점수를 부여했다.

이밖에 ‘빈의 향기 나는 카페 지도’, ‘영국의 아름다운 대학가’, ‘로마 도보 여행 지도’, ‘부다페스트 즐겁게 걷기’ 등의 특별 지도가 담겨 있으며, 각 도시의 지하철 및 버스·트램 노선도는 기본으로 수록돼 있다.

수록 국가 영국,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크기** 21x14cm **페이지** 250 **가격** 1만 원 **장점** 장단기 유럽 배낭 여행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돼 있다. 상세지도를 수록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도시마다 여행자의 취향에 따라 특별한 주제로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를 수록했다. **단점**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스위스를 비롯해 아일랜드, 북유럽 국가가 빠져 있어, 유럽 전체를 돌아보려는 여행자는 이들 국가에 대한 지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총 250쪽에 달하는 가이드북 형태로 1~2개국을 여행한다면 오히려 지역별 가이드북이 편리할 수 있다.



윙버스 빅맵(Wingbus Big Map)





파리, 런던, 로마, 프라하 등 유럽 4개 도시 지도를 별도로 마련했다. 유럽 주요 도시 여행자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 도시의 인기 스폿(Spot) 20곳 지도와 도시 전체 지도, 구역별 상세 지도를 함께 수록했다. 무엇보다도 상세한 내용을 담은 큰 지도가 특징으로 도시 전체 지도는 53x38cm, 구역 상세 지도는 25x20cm이다. 주요 관광지는 입체 삽화로 나타냈고, 주요 관광지나 특정 지점에서 걸어서 10분 걸리는 구역을 원으로 표시해 도보 여행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지도에는 맛집, 놀 곳, 쇼핑, 볼거리, 스타벅스, 맥도날드, 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유람선 선착장 위치 등 젊은 여행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장소들이 꼼꼼하게 표시되어 있다. 각 도시별 지하철 노선도도 별도로 안내했다.

또 상세 지도 아래와 오른쪽 페이지에는 여행지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 wingbus 홈페이지(www.wingbus.com)에 소개된 맛집, 쇼핑, 볼거리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여행 블로거들이 뽑은 최고의 명소는 'BEST!!'로 표시해 안내하고 있다. 각 장소에 대한 블로거들의 간단한 댓글을 소개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영업 시간, 가는 방법, 이용 요금도 제시하고 있다. 파리의 경우, 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한인 민박 30곳의 위치, 전화번호, 가격,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실었다.



한편 wingbus에서는 도쿄, 오사카·고베·교토, 후쿠오카, 상하이, 홍콩 등의 지도와 각종 세부 정보를 담은 미니 가이드(mini Guide, 각권 2500원)를 책자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또 파리, 런던, 로마, 프라하 등의 미니 가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운로드한 미니 가이드에서 지도가 담긴 페이지를 위치에 맞게 붙인 후 여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컬러프린터가 있다면 이용해볼 만하다.

크기 38x26.5cm **페이지** 파리(16), 런던(12), 로마(8), 프라하(4) **가격** 500원

장점 파리, 런던, 로마, 프라하 등 유럽 주요 도시를 여행하는 배낭 여행자들에게 적당하다. 컬러 인쇄된 큰 지도가 수록돼 목적지를 찾기 쉽고, 일반 가이드북에서는 찾기 어려운 맛집, 쇼핑 정보가 담겨 있어, 트렌드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이용하기 좋다. 종이 재질이 얇아, 접어서 사용할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하다.

단점 중장기 여행자가 사용하기에는 도시의 수가 너무 적다. 지하철 노선도의 역사 이름이 프랑스어로만 표기되어 있어, 주요 관광지 인근의 역을 찾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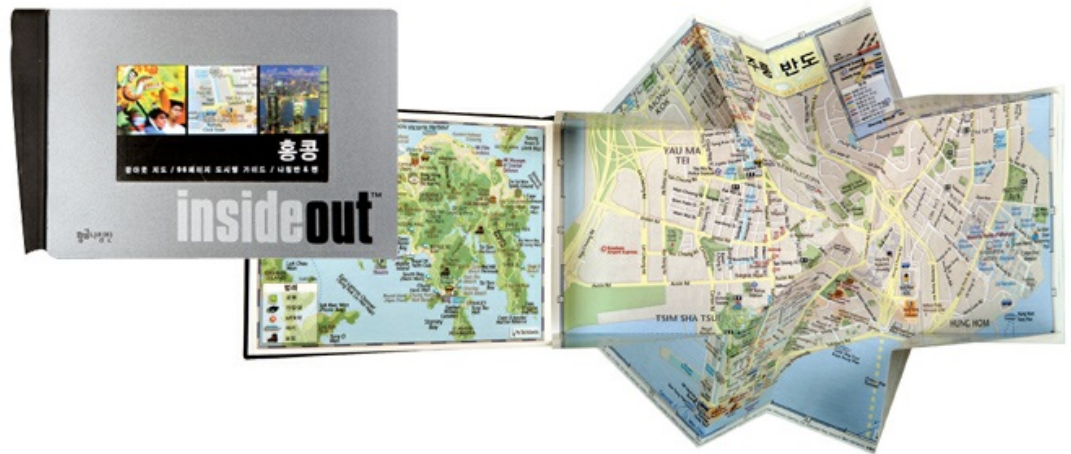
인사이드아웃(Insideout)

영국 지도 전문 출판사인 맵그룹(Map Group)이 제작한 포켓 사이즈 지도 겸 여행 가이드북의 한글판이다. 홍콩, 보스턴, 뉴욕, 파리, 밀라노, 두바이, 토론토 등 전 세계 19개 도시를 권별로 담고 있다.

지도는 앞뒤 표지 뒷면에 부착된 형태로 전체 지도와 지역 지도로 분류돼 있다. 특히 접혀 있는 지도가 팝업북처럼 쉽게 펼쳐져 큰 지도를 참고하며 여행을 할 수 있다. 지도 뒤쪽으로는 주요 볼거리, 쇼핑, 구경거리, 먹을거리, 여행자 수첩 등이 수록돼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경우, 홍콩 섬과 코즈웨이 만의 작은 지도 2장이 담겨 있고, 이 지도들을 슬쩍 접어들면 홍콩 중심부와 카오룽반도의 큰 지도가 눈앞에 펼쳐진다. MTR(지하철) 노선도를 카오룽반도 페이지 상단에 별도로 표시했고, 관광안내소를 비롯해 관광 명소, 박물관, 호텔, 사원, 병원, 페리 선착장, 공중화장실 등의 위치가 나타나 있다.

책자 겉면에 소형 나침반을 달아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어두운 곳에서 지도를 보거나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라이트펜도 들어 있다.



크기 15x9.7cm, 팝업 지도 25x21.5cm **페이지** 96(지도 5) **가격** 9500원 **장점** 포켓 사이즈로 휴대하기 편하며, 주요 관광지를 표시한 지도 및 팝업 지도는 디자인이 예쁘고 심플해 보인다. 소형 나침반과 야간용 라이트펜도 좋은 아이디어다. 주요 관광지 설명과 지도를 연계시켜 지도상에서 위치를 찾기 쉽다. **단점** 지도의 범례를 한국어로 표시했지만 지도 내부의 모든 지명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

비틀맵(Beetlemap) 월드시티맵

국내 지역별, 주제별 입체 그림 지도로 유명한 (주)지오마케팅의 해외 도시 여행 지도이다. 현재 월드시티맵은 중국 베이징만 출간된 상태로 조만간 상하이, 이스탄불, 예루살렘 등의 지도가 선보일 예정이다.

흔히 볼 수 있는 1장짜리 접이식 지도로 각 관광지를 대표하는 모습을 입체 그림으로 표현하고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 3가지 언어로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베이징 지도의 경우, 베이징 전체 지도와 천단 공원, 이화원, 텐안먼 광장, 왕푸징 거리, 고궁(쯔칭청)의 상세도 등 총 6개의 입체 그림 지도, 지하철 노선도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주경기장과 올림픽 체육센터 등을 담아 올림픽 때 베이징을 방문할 여행자라면 이용할 만하다.



도시 전체 지도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주요 관광지 상세도는 눈에 쏙쏙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제작됐다. 지도의 그림과 실제 건물이나 관광지의 모습이 똑같아 방문하고 싶은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관광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비롯해 입장료, 개장 시간, 교통편, 홈페이지 등을 담고 있어 가이드북으로도 손색이 없다.

한쪽 면에서는 만리장성, 용경협, 명13릉, 류리창 거리 등 주요 관광 명소를 황실유적, 서민과 전통의 거리, 베이징 외곽, 쇼핑·문화 거리, 젊음의 명소로 분류해 소개했고, 베이징 추천 맛집과 거리 음식 베스트 5를 안내하고 있다. 경극 감상, 후통 누비기, 발마사지 등 베이징에서 꼭 해볼 일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버스, 전차, 지하철, 택시, 자전거 등의 교통편은 별도 지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크기 23x11cm, 펼쳤을 때 62x88cm **페이지** 2 **가격** 7000원 **장점** 1장으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실물과 똑같은 입체 그림으로 표현해 여행자들이 지도를 보고 쉽게 주요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도의 주요 관광지나 지점에 한국어를 병기한 것도 장점이다. **단점** 베이징 전체 지도의 경우, 입체 그림과 함께 관광지의 특징을 전달하는 그림을 추가로 그려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며, 지하철 역사나 버스 정류장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도보 여행자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미쉐린 지도





자동차 및 자전거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도이지만 한국어판은 없다. 지도에는 도로의 종류, 폭, 전체 및 구간 거리, 도로 이름, 언덕, 나들목 등 자동차 여행에 필요한 모든 도로 정보가 집대성돼 있다. 도로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는 만큼 지도가 크다.

또 종교 시설, 오래된 건축물과 성, 동굴, 국립공원, 댐 등이 표기되어 있고,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안, 프랑스의 에트르타~생말 해안, 생트로페~망통 해안, 독일의 로맨틱 라인과 모젤 계곡 등 자동차나 자전거로 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도로(Scenic Route)가 초록색으로 덧칠해져 있다. 또 주요 도시 간 소요 시간이 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최고 및 최저 속도, 혈중 최대 알코올 농도, 현지 운전 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이 안내돼 있다.

외국 지도의 경우, 재고가 별로 없으므로 서점에 문의한 후 구입해야 하고, 주문할 경우에는 1~2주일 정도가 걸리므로 여행 출발에 앞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크기 25x11.3cm, 펼쳤을 때 110x100cm 페이지 1 가격 11.95달러
장점 도로 정보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가 자세하게 표시돼 있고, 주요 도시 간 거리와 소요 시간,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등 자전거 및 자동차 여행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함께 담고 있다. 단점 한국어로 된 지도가 없어 주요 목적지를 찾는 데 어렵고, 펼쳤을 경우 지도가 지나치게 커서 운행 중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것도 단점이다.

LBS 데이터 로밍 서비스(KTF)

세계 최초로 해외에서 휴대전화의 무선 인터넷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여행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KTF의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로 현재 일본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쇼(SHOW) 자동 로밍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114’와 SHOW 버튼을 누르거나 일본 도착 시 받게 되는 ‘**114 저팬’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주변 관광지, 음식점, 숙소 등 현지 정보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여행 가이드북 없이도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쿄의 힐튼호텔을 찾아가려 한다면 검색창에 ‘힐튼호텔’을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표시되며, 힐튼호텔에 대한 상세 정보에서 ‘지도 보기’를 선택하면 전화번호, 한글 주소와 함께 힐튼호텔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된다. 현재 있는 곳에서

음식점을 찾는다면 먹을거리→음식 종류 선택→음식점 선택→지도 보기 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이용료 일정액 요금 상품(2000원)과 데이터 로밍 72요금제(5M에 5000원)에 가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데이터 통화료의 경우 1KB당 14원이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93%의 할인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나 여행지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NTT 도코모 망만을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접속이 안 될 수 있다. KTF는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top](#)